

정책사례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

강 은 숙** · 이 달 곤***

.....<目 次>.....

- I. 문제제기
- II. 이론적 논의
- III. 정책사례연구 설계의 평가기준
- IV. 정책사례연구에 대한 평가 결과
- V. 요약 및 한계

<요 약>

이 연구는 2004년도 한국정책학회보지에 수록된 35개의 정책사례논문을 대상으로 사례연구설계 방법론에 기초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기준으로는 ‘논리적 추론과정’ 및 ‘타당성과 신뢰성’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소수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책사례연구가 사례연구의 초보적 수준인 기술적·탐색적 연구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방법이 경험적·과학적 연구방법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두 가지 기준들을 엄격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방법론이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연구는 인지적 지식을 기를 수 있는 방법으로서 행태주의에 기초한 계량적 연구에서는 한계가 있는 해석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므로 나름대로의 유용성은 담보된다. 행정학이나 정책학 분야에서 커지고 있는 사례연구의 중요성에 비추어 본다면, 사회현상의 맥락과 복잡성을 보다 더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사례연구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정책사례, 사례연구, 연구방법론, 평가】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해양대학교 신진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임.

** 한국해양대학교 통상행정학부 전임강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I . 문제제기

사회과학 연구방법은 크게 양적 혹은 계량적 연구와 질적 혹은 비계량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양적 연구방법은 실증주의에 기초를 두고서 기술과 설명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질적 연구방법은 실증주의 철학보다는 해석적 접근과 비판적 접근방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두 연구는 추구하는 목적으로 상당히 다르다. 즉, 양적 방법이 계량화된 자료를 통해 사건과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면, 질적 방법은 기술과 설명에 더하여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물론 연구대상, 방법, 구체적 연구프로젝트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남궁근, 2003: 301~302). 의학에서 신체의 일부나 해부용 사체(cadaver)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점은 사회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사회과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이달곤, 2005: 32~33).

사회과학 방법론은 사회과학의 성격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성격에 대한 가정을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첫째, 기능주의이론에 기초한 행태주의 방법론, 둘째, 상호주관적인 인식에 근거하여 현상을 파악하는 해석학적 방법론, 셋째, 주관적 견지에서 급진적인 사회변동에 관심을 두는 비판이론적 방법론, 넷째, 객관적 입장에서 급진적 변동을 주장하는 구조주의 방법론이 그것이다(Burrell & Morgan, 1979: 3~29; 강신택, 1998: 27~35; 박병식, 1993: 25). 이 네 가지 방법론은 존재론적, 인식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의 특성에 대한 가정에 있어서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변동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실증주의에 기초한 양적 연구방법은 행태주의 방법론에 해당 한다¹⁾.

이러한 방법론의 다양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사회과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행태주의 방법론이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임을 분명하게 해준다. 행태주의적 방법론은 현대의 복잡한 사회현상과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사고나 인식을 규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례연구를 비롯한 심층면접, 참여관찰, 민속학적 방법 등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사례연구방법은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동시에’ 또는 ‘개별적으로’ 활용하여 특정한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이자, 행태주의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의 하나로 활용된다. 사례연구는 사회조사 시에 현실문제를 있는 그대로 두고서 ‘어떻게’ 와 ‘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크지만 아직도 사례연구 방법론이 확고

1) 자세한 내용은 강신택(1998: 27~35) 참조.

하게 정립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이선우, 2000: 114; 박병식, 1994: 74-77).

행정학과 정책학은 물론이고 경영학을 비롯한 많은 사회과학은 연구방법론으로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행태주의 방법론에 입각해 볼 때 사례연구방법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장점도 적지 않다. 특히, 행태주의 방법론에서 놓치기 쉬운 실제생활(real-life)의 맥락의 놓치지 않고 복잡한 사회현상의 전체적이고(holistic) 의미있는(meaningful)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Yin, 1989: 14). 즉 사례연구방법은 이론을 검증하고 새로운 이론을 개발가능하게 하며, 사건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맥락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미 일반화된 가정과 모순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과정의 상세한 부분(subtleties)과 뉘앙스 및 정치과정의 실제에 대한 통찰력(intuitive feel)을 제공하며, 최근에는 분석적 기법(analytical skills)을 풍부하게 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Anderson, 1994: 289; Golembiewski & White, 1980: 5).

이 글에서는 먼저, 사례, 사례연구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특징을 살펴보고, Yin(1989)의 연구를 중심으로 사례연구가 과학적 연구가 되기 위한 4가지 기준을 검토한다. 그리고 기존 한국의 사례연구가 이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볼 때, 어느 정도 방법론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2004년도 한국정책학회보에게재되어 있는 사례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정책학 분야의 사례연구가 방법론상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보다 엄격한 추론을 바탕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사례연구가 될 수 있는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사례, 정책사례 그리고 사례연구 유형

사례연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전에 사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Ragin(1992: 7-11)은 “사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사례의 개념지도를 작성하고, 사례를 두 가지 기준 – 경험성 정도와 일반성 정도²⁾ –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사례개념을 도출하고 있다. 두 가지

2) 경험적 단위와 이론적 구성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 경험성 정도는 실재론과 명목론 사이의 입장 및 사회과학 방법론상의 논쟁과도 연결된다. 일반성 정도는 연구수행과정

기준을 이용하여 사례를 분류하면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가지 유형3)–발견 단위로서의 사례, 객관적 대상으로서의 사례, 구성단위로서의 사례, 관습적 단위로서의 사례–이 나오게 된다.

<표 1> 사례의 의미에 관한 개념지도

사례에 대한 이해	일반성 정도	
	구체적(Specific)	일반적(General)
경험성 정도	<p>경험적 단위 (empirical units)</p> <p>(1) 발견 단위로서의 사례 (예: 세계체계, 지역사회, 개별정책, 권위적 성향 등)</p>	<p>(2) 객관적 대상으로서의 사례 (예: 개인, 조직, 가족, 회사, 도시 등)</p>
	<p>이론적 구성개념 (theoretical constructs)</p> <p>(3) 구성단위로서의 사례 (예: 전제정치체계, 테러리즘 등)</p>	<p>(4) 관습적 단위로서의 사례 (예: 산업사회)</p>

자료: Ragin(1992: 9).

이러한 틀을 통해 볼 때 사례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상당히 다

- 에서 도출되는냐 그렇지 않는냐에 따라 ‘구체적’ 혹은 ‘일반적’ 사례로 나눌 수 있는데, 질적 연구 혹은 양적 연구로 구분하는 것과 중첩된다(Ragin, 1992: 8-9).
- 3) 먼저, 발견단위로서의 사례는 경험적으로 실재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말한다. 이러한 사례는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확인되고 확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례에 접근하는 연구자는 사례의 경험적 한계를 평가하는 것을 연구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관점에서는 “지역사회(community)”라는 경험적 단위는 문제가 있으며 그 특성에 따라 개별단위로 연역될 수 있다. 단일 지역사회의 경계는 유동적이며 늘 변화하기 때문이다. 둘째, 객관적 단위로서의 사례는 연구자가 사례가 경험적으로 실재한다고 믿지만 연구과정에서 그 존재를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례는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대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사례를 기존 연구문헌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지정한다. 셋째, 구성단위로서의 사례는 연구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이론적 구성개념으로 본다. 이 관점에서는 사례가 경험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며, 연구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는 이론적 구성개념으로 이해되는 사례의 개념이 아이디어와 증거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세련화된다. 넷째, 관습적 단위로서의 사례는 일반적인 구성개념이면서, 동시에 관련 학자들의 집합적인 공동노력과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는 입장이다. 여기에서 이론적 범주는 주로 공동의 학술적 관심 때문에 존재한다. 각 연구자는 이론적 범주에 속하는 경험적 사례들을 연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례는 사회과학자 공동체의 집합적 노력의 산물이며, 따라서 사회과학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되는 동시에 제약을 가한다(Ragin, 1992: 9-11).

르게 정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상 사례연구라고 칭하는 소수사례 및 단일사례는 ‘발견단위로서의 사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논문의 평가 대상인 정책사례연구의 대상이 되는 정책사례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정책의 구체적 모습이 연구수행과정에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사례를 이와 같이 구분할 때, 정책사례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Goode-Hatt, 1981; Lofland, 1971; Orum-Feagin·Sjoberg, 1991; 남궁근, 2003: 321–322에서 재인용; Yin, 1989: 20–23; 김해동, 1984). 즉, 정책사례연구(policy case study)란 어떤 정책이나 현상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답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이론 및 연구결과, 기록문서 및 보고서, 면담자료, 언론·방송보도, 인터넷자료, 관찰자료 등)를 사용하여 독특한 특성을 가진 프로그램, 정책, 정책과정, 제도 등 소수 실제 현상에 대해 심층적·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례연구의 유형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례의 수를 기준으로 단일사례와 복수사례연구, 연구목적을 기준으로 탐색적 연구, 기술적 연구, 설명적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용도에 따라 연구용 사례와 교육용 사례로 구분할 수도 있다. 다양한 유형분류 중 과학적·논리적 추론을 통한 경험적 사례연구와 관련해서 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Lijphart의 유형분류라고 할 수 있다(Lijphart, 1971: 691–693). 그는 이론화의 정도에 따라 이론과 무관한 무이론적(atheoretical), 해석적(interpretative), 가설창출적 (hypothesis-generating), 이론확인적 (theory-confirming), 이론논박적(theory-informing), 일탈(deviant) 사례연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⁴⁾.

4) 이러한 유형들은 각각 이념형을 나타내며 하나의 특정한 연구는 하나 이상의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다. ① 무이론적 사례연구는 엑스타인(Eckstein, 1973)의 개별기술적 사례연구(configurative-idiographic case study)로서 사례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거나 사례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사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연구의 초점을 둔다. ② 해석적 사례연구는 일반 이론의 확립보다는 사례 자체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채택된다는 점에서 무이론적 사례분석과 유사하지만, 어떤 특정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이미 확립된 이론이나 법칙들에 기초하여 설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즉 특정 사례 및 현상에 대한 기술을 통해 일반이론을 도출하는 것이, 특정한 사례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③ 가설창출적 사례연구는 다소 모호한 잠정적 가설을 가지고 출발하여 다수의 사례연구에 적용하여 검증함으로써 보다 분명한 가설을 정립하는 연구를 말한다. 반복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가설이 구체화되면 가설의 일반화나 새로운 일반이론을 구축할 수 있으므로 이론적 가치가 커진다. ④ 이론확증적 사례연구는 이미 정립된 명제나 일반이론을 개별사례의 관찰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기존 명제나 일반이론의 설명력이 확실히 증명될 수 있는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개별 사례에 관한 사전 지식은 일반이론에 포함되는 몇 개의 변수들에 국한된다. ⑤ 이론논박적 사례연구는

2. 정책사례연구의 특징

정책사례연구는 하나 혹은 소수의 정책사례를 대상으로 심층적·종합적으로 연구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표본이나 현상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구분된다. 사례연구는 실험, 서베이(survey), 기존자료분석, 역사적 방법 등과 구분되는 연구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소수사례의 연구

대부분의 정책사례연구는 소수의 정책사례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접근한다. 이러한 특징은 다수 사례를 대상으로 모든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론적 의의도 적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개별사례를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서 취급하여 이들을 하나하나 이해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다수 사례가 분석되어야 하는 연구에서는 개별사례의 깊이 있는 통합적 관찰보다는 현상이나 어떤 변수와 다른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하는 계량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정책사례연구들은 특별한 정책, 법령, 또는 제도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소수 혹은 단일 정책사례연구는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추론을 하는 경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 때문에 사례의 수를 늘리거나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일반화의 문제를 어느 정도 달성하려고 한다. 사례비교분석의 경우, 최소한 둘 이상의 사례에 관한 분석을 행함으로써 일반화의 수준을 높이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의 사례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도 암묵적 이상형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남궁근, 1998: 97) 하나의 사례를 시기별로 분석하는 경우에도 각 시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단일사례연구도 사례비교연구의 범주에 포함시켜 살펴볼 수 있다.

Verba는 정교한 가설과 가설 검증의 어려움을 동시에 지적하면서 잘 정제된

기존의 일반이론의 설명력이 약화되는 연구를 말한다. 그러나 하나의 사례에서 이론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해서 기존 이론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론확증적 사례연구나 이론논박적 사례연구는 이론이나 명제를 사전적으로 전제하고 이러한 이론으로부터 경험적 가설을 도출하여 검증함으로써 이론의 설명력의 확장여부를 결정하는 과학적 추론의 일반적 과정과 가장 부합하는 사례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⑥ 일탈 사례연구는 이미 정립된 일반이론으로부터 벗어난 사례에 관한 연구를 지칭하며, 왜 특정사례가 일탈현상을 나타내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변수를 찾아내거나, 기존의 변수들을 다른 관점에서 재정의(redefinition)한 다음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일탈사례연구를 통해 원래의 이론이나 명제를 뒤집을 수도 있고 수정된 이론이나 명제를 제시함으로써 기존 이론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매우 큰 이론적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Lijphart, 1971: 691–693; Eckstein, 1973: 79–137).

추론에 근거한 형상적 접근방법(disciplined configurative approach)을 채택하여 단일 또는 소수사례를 적절히 분석함으로써 가설검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Satori는 다수사례연구를 통해 어떤 개념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자 욕심을 낸다면 개념의 과장 또는 왜곡(conceptual stretching)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광범위한 사례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은 많은 경우 중요성이 적고, 매우 추상적이며 학문적 가치가 적을 수 있다. 가장 관심 있는 개념을 채택한 소수사례연구는 개념의 왜곡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수하다(남궁근, 1998: 90~91에서 재인용).

2) 심층적·집중적 연구

사례연구는 분석대상이 되는 사례에 대한 심층적, 다차원적, 집중적 연구방식을 추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례연구자는 하나 또는 소수의 관찰 사례를 상세하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연구함으로써 소수의 의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찾으려 한다. 소수사례연구는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나 사회구조 및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규칙성을 발견하는데도 유용하다(고경훈, 2004: 246). 연구자는 연구결과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그 사례가 갖는 여러 가지 측면과 관련시켜서 증명하고자 한다. 때로는 문제의 총체성(totality)에 도전하고 싶을 것이다.

3) 질적 방법

연구방법을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으로 구분할 때 실험이나 서베이는 주로 양적 방법을 사용하고 사례연구에서는 주로 질적 방법을 채택한다⁵⁾. 반면에 다수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주로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개별 사례연구에서 양적 분석방법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경영학 사례에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시계열 분석과 같은 양적인 방법을 여러 국가의 정책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사용 할 수 있고, 다수 국가에 대한 독립적인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획득한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이들 국가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례연구는 기본적으로 질적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5) 사례연구도 양적 자료를 포함할 수 있고, 반대로 몇몇 실험이나 서베이는 질적 자료에만 의존할 수도 있다. 사례연구를 “질적 연구”와 혼돈해서는 안된다(Schwartz & Jacobs, 1979; Van Maanen, Dabbs, & Faulkner, 1982; Yin, 1989: 24~25에서 재인용). 질적 연구라고 해서 항상 사례연구가 되는 것도 아니다.

4) 사회과학 및 행태과학

사례연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사회과학 및 행태과학의 발전에 기여한다. 먼저, 현재 잘 이해되지 않는 질문이나 상황에 대해 지적인 정직성을 견지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사회과학에 대해 입체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가용한 이론(available theory)이 부분적으로만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사례연구는 사회과학의 개방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얼마든지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이론화의 작업이 열려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셋째, 독자로 하여금 대리학습 경험(vicarious experience)을 허용함으로써 정책이나 행정의 생생한 모습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해주어, 학문연구의 실용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이를 통해 사례연구는 구체적인 현실의 기초로서 행태과학 지식 및 이론과 함께 행정 및 정책현실을 풍성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준다(Golembiewski & White, 1980: 10-11).

III. 정책사례연구 설계의 평가기준

사례연구가 과학적·경험적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의 일반적인 논리적 추론과정을 반드시 통하여 연구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논리적 진술과정을 보여주는 연구설계가 중요하다. 사례연구의 수준을 가름하기 위해서는 사례연구설계의 유형, 연구수행 과정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사례연구설계 자체의 우수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들이 필요하다(Yin, 1989: 29-35; 김성훈, 2001: 225-233; 이선우, 2000: 81-109; 남궁근 2003: 334-336).

1. 사례연구설계의 유형

연구설계란 조사내용을 수집·분석·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investigator)를 안내해주는 계획으로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을 끌어낼 수 있는 논리적 입증모형(logical model of proof)이다. 동시에 연구설계는 연구결과 얻은 결론이 다른 모집단이나 상이한 상황에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일반화의 범역(domain of generalizability)을 알려준다(Nachmias and Nachmias, 1976: 77-78). 연구설계는 ‘연구문제’(what questions to study), ‘관련 자료’(what data are relevant), ‘자료수집’(what data to collect), ‘결과분석 방법’(how to analyze the results) 등을 다루는 연구

의 청사진이 되기도 한다(Philliber, Schwab & Samsloss, 1980; Yin, 1989: 29-29에서 재인용).

Yin(1989)은 사례연구를 위한 조사설계의 기본형을 사례수와 분석단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사례연구 설계의 유형은 두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단일사례 연구설계인지 아니면 복수사례 연구설계인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고, 분석단위(units of analysis)가 전체적인 설계(holistic design)를 위한 것인지, 다수의 세분화된 설계(embedded design)인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을 조합하면 네 가지 유형의 사례연구 설계모형이 가능하다. 즉 (1) 단일사례-전체적 설계(single-case/holistic designs), (2) 단일사례-세분화된 설계(single-case/embedded designs), (3) 복수사례-전체적 설계(multiple-case/holistic designs), (4) 복수사례-세분화된 설계[multiple-case(embedded) designs]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Yin, 1989: 46-60).

〈표 2〉 사례연구 설계의 기본유형

구 분	단일사례 설계	복수사례 설계
전체적(단일분석단위)	유형 I (단일사례-전체적 설계)	유형 III (복수사례-전체적 설계)
세분화(복수분석단위)	유형 II (단일사례-세분화된 설계)	유형 IV (복수사례-세분화된 설계)

자료: Yin(1989: 46).

「유형 I」에 해당하는 단일사례-전체적 설계는 하나의 사례를 전체적인 분석단위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유형은 단일실험과 유사하며, 사례연구에서 그 사례의 전체적 성격을 연구할 때, 해당 사례의 논리적 하위단위가 구체화될 수 없을 때, 또는 사례연구에 내재된 적절한 이론이 총체적 성격을 띠고 있을 때 사용된다. 이러한 유형의 사례연구는 보통 탐색적 수단이나 예비적 사례연구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유형 II」에 해당하는 단일사례-세분화된 설계는 하나의 사례에 대하여 이를 구성하는 하위단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유형은 환자에 대한 다각적 진단을 통하여 질병의 발생원인을 규명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례연구는 하나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문제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성질을 연구할 때, 그 사례의 논리적 하위단위를 통해 전체적 성격을 규명할 때, 사례연구에 내재된 이론이 부분적인 이론들로 구성될 때 사용된다. 이러한 유형의 사

례연구는 기술적 연구나 원인분석을 위해 사용된다.

「유형 III」에 해당하는 복수사례-전체적 설계는 다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전체적 단위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유형의 사례연구는 유사한 조건하에서의 반복실험과 유사하다. 이러한 유형의 사례연구는 전체적 성격을 연구하면서 하나의 사례만으로는 그 현상을 타당성 있게 규명해낼 수 없거나 반복조사를 통해 관심의 대상이 되는 현상의 다양한 상황과의 관계를 파악하려 할 경우, 그리고 복제(replication)의 논리에 따라 일반화된 이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된다. 이러한 유형의 조사는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적합한 방법이다.

「유형 IV」에 해당하는 복수사례-세분화된 설계는 다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사례를 구성하는 하위단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유형의 사례연구는 유사한 조건하에서의 심층적 세부실험을 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이 유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나 조사내용의 과학화와 일반화를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유형의 사례연구는 다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 세분화된 분석단위를 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된다. 기술적 연구나 인과관계 규명과 같은 일반화의 수준이 높은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사례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설계 방법이다.

2. 논리적 추론을 위한 정책사례연구 수행과정

1) 정책사례의 선정

정책사례연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이 적절한 정책사례를 선정하는 것이다. 모든 정책현상이 사례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연구로서의 가치를 갖는 정책사례는 중요하거나(critical), 독특하거나(rare or unique), 극단적이어야(extreme) 한다. 정책사례가 중요하거나 독특하거나 극단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러한 정책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가설이나 이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단일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기존의 이론 및 가설을 확증하거나 반증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이론적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⁶⁾. 또한 이전에는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없었으나 일반적으로 실제해왔던 내용을 다루는 고발성 사례(revelatory case)도 사회문제를 폭로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단일사례연구로서의 정당성을 가진다(Yin, 1989: 46-52).

6) Allison(1971)의 쿠바미사일위기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 연구에서 Allison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세 가지 경쟁적인 조직이론모형을 통해 설명한 뒤, 이러한 유형의 위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모형을 제시한다. 이러한 설명 모형은 다른 유사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2) 연구질문의 제시

정책사례연구에서도 다른 형태의 연구에서와 같이 연구질문(study questions)을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정책사례연구를 위한 질문은 연구의 목적이 기술적(descriptive)이냐, 설명적(explanatory)이냐, 탐색적(exploratory)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정책사례연구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어떻게”와 “왜”라는 질문의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명적 연구의 연구질문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론적 틀에 따라서 연구를 위한 가설 및 가정을 만들거나 그 연구질문을 설명하여 줄 수 있는 작은 연구질문들을 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를 위해 제시되는 변수들에 대한 개념화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이선우, 2000: 84). 연구질문의 규정을 통하여 연구목적, 범위, 연구대상이 되는 사례, 필요한 자료의 종류 등 연구설계의 기본적 토대가 마련된다.

3) 연구명제(study propositions) 및 가설의 설정

다음으로 정책사례연구 수행의 지침이 되는 명제, 이론적 근거 또는 가설을 제시한다. 정책사례연구에서 명제 또는 이론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사실의 발견을 위한 탐색적 연구나 기술(description)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사례연구에서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명제가 없어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의 확인 및 검증 또는 논박을 위한 연구에서는 일정한 이론적 근거 또는 명제가 반드시 필요하다⁷⁾.

사례연구의 이론적 근거인 명제는 사례분석의 주요방향, 즉 중요한 변수,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자료분석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연구결과의 해석 및 일반화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명제가 없이는 연구자가 자료수집과정에서 조사 불가능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따라서 사례연구의 설계에서 지침이 되는 명제들이 구체화될수록 사례연구의 자료수집은 더욱 실행가능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4) 연구 분석단위, 분석대상 선택 및 자료수집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연구의 분석단위(unit of analysis)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정책사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전체로서 사례를 분석단위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정책사례를 구성하는 하위단위를 분석단위로 설정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Yin(1989: 46-50)은 사례를 그 구성적 특징에 따라 전체적 단위로 취급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전체적 접근방법(holistic approach)이라 하

7) Lijphart(1971)의 가설창출적 사례연구, 이론확증적 사례연구, 이론논박적 사례연구, 일탈 사례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고, 사례의 하위단위로 세분화하여 그 하위단위를 분석단위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을 하위단위 접근방법(embedded approach)이라 부르고 있다. 단일정책사례의 경우 하위단위 접근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사례연구질문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 때 정책사례에 대해 하위단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보다 큰 단위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연구의 초점이 빗나가게 되고 초기의 연구관심이 맥락에 머물게 된다.

자료수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이상적인 연구대상은 접근이 용이하며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된 과정, 직원, 제도, 프로그램, 상호관계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연구대상에 대한 자료의 질이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대상의 선택이 이상적일수록 연구내용과 결과도 충실히 연구의 일반화도 그만큼 용이해질 수 있다(Marshall 외, 1989: 54-58).

자료는 가급적 다양하고 풍부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연구대상에 대한 자료수집의 원천으로는 기존 통계자료, 연구문헌, 정부공식문서, 심층인터뷰, 전화인터뷰, 참여관찰, 직접관찰, 설문조사 등이 있는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입체적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면담자료는 피면담자의 증언이 그대로 왜곡됨이 없이 논문에 증거자료로 제시되어야 하고, 참여관찰 및 직접관찰을 통해 얻은 자료들은 현장노트(fieldnote)를 작성하여 내용분석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이선우, 2000: 97-99).

5) 자료의 분석 및 연구결과 해석

수집된 자료를 이론적 명제와 연결하고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단계이다. 먼저, 계량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자료간의 상호연결을 위해 수집된 원 자료의 코딩작업을 시도하고 변수들 간의 논리적 연결을 시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지만, 번거로운 작업을 통해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류하려는 노력이 의식적으로 진행될 때에만 사례연구방법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에 대한 비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김성훈, 2001: 232).

이어서 수집된 자료가 설정된 연구목적이나 가정에 연관되는지를 검증한다. 자료와 명제를 연결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 방법은 Campbell(1975: 178-193)이 제시한 “유형일치(pattern-matching)”의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동일한 사례로부터 얻은 여러 가지 단편적인 정보를 토대로 일정한 이론적 전제와 관련되는지를 검토한다. 연구주제에 따라서는 시계열분석도 가능하다(Yin, 1989). 정책사례연구에서는 연구의 발견결과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소한 두 가지의 대립적 명제들을 설정하여 비교한 연구에 해석을 내려야 한다.

다음은 정책사례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논리적 추론과정을 제대로 밟았는지

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이다.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개별 항목들은 연구주제나 연구영역에 따라 빼거나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표는 체트리스트 중의 하나를 소개한 것이다.

〈표 3〉 정책사례연구의 논리적 추론과정 진단 체크리스트

논리적 추론단계	논리적 추론과정 진단 체크리스트
정책 사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정책사례가 연구목적이나 연구질문에 적합한가? 즉 연구목적에 비추어볼 때 선정된 정책사례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이론형성 목적의 정책사례연구인지, 단순 정책사례연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선정된 정책사례의 대표성, 신뢰성, 타당성과 관련하여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나? - 선정된 정책사례에 대한 자료수집 및 접근이 용이한가? 선정된 정책사례를 연구자가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연구 질문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분야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가? 선행연구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연구질문이 구성되었는가? - 연구질문은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었는가? - 큰 질문을 설명하기 위해 작은 질문들을 세분화하고, 작은 질문들을 구성할 때, 큰 질문과의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하였는가?
연구 명제- 가설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질문에 부합되게 이론적인 틀을 구성하였는가? - 이론적인 틀에 사용된 주요 개념이나 변수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 또는 개념화작업이 이루어졌는가?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는 분명하게 설정되었는가? - 연구목적은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연구 분석 단위- 분석 대상 선택-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질문과 연구명제 및 가설에 비추어볼 때, 적절한 분석단위와 분석대상을 선택하였는가?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한 연구방법이 논리적이며 적절한가? - 여러 가지 연구방법 중 사례연구방법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선택한 이유나 장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가? - 필요한 자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풍부하게 수집하였는가? 연구목적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자료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하지는 않았는가? - 자료수집 시 객관성을 유지하였는가? 혹은 객관성을 획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수행하였는가?
자료 분석- 결과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비추어 변수별로 적절하게 분류 및 요약되었는가? 분류된 자료를 논리적으로 연계하는 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자료분석 및 결과해석은 앞에서 제시한 이론적 틀에 기초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결과해석이 너무 주관적이거나 편파적이지는 않은가? - 분석결과를 토대로 유형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고, 일정한 유형화가 이루어졌는가?

자료: 김성훈(2001: 224-225) <표1> 재구성.

3. 사례연구 설계의 평가기준

연구설계는 논리적 진술의 집합(logical set of statements)이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 검증을 통해 그 질을 평가할 수 있다. 논리적 검증의 기준으로는, 구성적 타당성(construct validity),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⁸⁾,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 신뢰성(reliability)이라는 네 가지가 있다. 사례연구가 과학적 연구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Yin, 1989: 40~45).

1) 구성적 타당성

먼저, 구성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조작적으로 측정(correct operational measures)할 수 있어야 한다.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 초기에 측정에 대한 것을 매듭지어야 하지만, 사례연구를 포함한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수집단계 이전부터 보고서작성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노력한다. 또한 연구기간동안 계속되는 현장조사에서 얻은 결과와 기타 자료들 간의 끊임없는 연결(chain of evidences)을 시도하고, 연구 말미에는 도출되는 대안과 다양한 증거자료들 간의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실시하고, 보고서 초안이 만들어진 후에는 핵심적인 정보제공자(key informants), 연구대상자, 전문가에게 검토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러 번에 걸친 검증과정을 통해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면서 구성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이선우, 2000: 111).

2) 내적 타당성

내적 타당성은 정확한 변수의 선정과 그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설정함으로써 높일 수 있는데, 사례연구가 비난받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비록 정확한 분석도를 그려 가장 설명력있는 변수들로 인과관계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그 변수의 선정과 상관관계 분석이 여전히 작위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사전에 변수를 작위적으로 선정하고 표본집단을 추출하여 그것을 통계적으로 처리한 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양적 연구가 과연 사례연구보다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례연구는 연구 초기에 변수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대상집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여 연구대상이 되는 특정 현상으로부터 가능한 많은 사실들을 추출한다. 그리고 나서 그 현상과 사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그

8) 내적 타당성은 설명적 연구나 인과관계를 밝히는 사례연구에서만 충족되면 된다(Yin, 1989: 27).

현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실들은 요인들(factors)로 규정하고 변수화하여 설명모형을 만들기 때문에 통계적 검증의 미비만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양적 연구보다 내적 타당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외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은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외적 타당성과 관련하여 하나의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단일 사례연구에 있어서 외적 타당성 문제는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생각되어왔다. 사례연구에서 외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연구방법에 대한 복제의 논리(replication logic)이다. 즉 이미 선행연구에서 방법론적으로 검증받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비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제를 논리를 통해 사례연구는 분석적 일반화(analytical generalization)를 시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⁹⁾.

소수사례로 이한 외적 타당성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단일사례에 대한 시기별 비교분석, 유사사례 혹은 상이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장기적 시계를 가진 단일사례를 하위변수를 추출하여 시기별로 비교분석하거나, 같은 영역에서의 유사한 사례 혹은 상이한 두 개의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분석적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4) 신뢰성

신뢰성은 어떤 연구자가 수행한 특정 연구를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반복할 경우,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 확보될 수 있다. 사례연구는 신뢰성의 확보와 관련하여 계량적인 연구 못지않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수집단계에서 전형적인 연구계획안(protocol)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사례연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나 센터(case study clearance center)를 구축함으로써 특정 대상으로부터의 자료수집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표 4>은 사례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의 4가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법과 각각의 기법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하는 연구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9) 반면, 계량적 연구에서는 표본추출 논리(sampling logic)에 기초한 통계적 일반화(statistical generalization)를 추구한다. 따라서 복제의 논리에 기초한 다수사례를 설문조사에서의 다수 응답자와 유사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표 4〉 연구설계검증을 위한 기준과 기법 및 연구단계

기 준	사례연구 기법	연구단계
구성적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자료 출처(이론, 연구결과, 정부보고서, 면담자료, 관찰자료, 기타 자료 등) 활용 · 수집된 자료의 연결(chain of evidence) · 사례연구 보고서 초안에 대해 핵심 정보제공자, 전문가 등의 검토 요청 	자료수집 자료수집 및 분석 보고서 작성
내적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일치(pattern matching) · 설명 정립(explanation-building) · 시계열분석 	자료분석 자료분석 자료분석
외적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사례연구에 있어서의 복제의 논리(replication logic) 사용 	연구설계
신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연구에 대한 전형적 연구계획안(protocol) 사용 · 사례연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자료수집 자료수집

자료: Yin(1989: 41).

IV. 정책사례연구에 대한 평가 결과

1. 전반적 특성 분석

앞에서 제시한 사례연구설계의 평가기준과 논리적 추론을 위한 사례연구 수행과정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 비추어 2004년도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 정책 사례연구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정책학보에 게재된 논문 중 사례를 분석 한 논문은 58개 중 35편으로 절반을 넘는다. 사례연구가 정책학연구의 한 방법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사례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논문 9편¹⁰⁾과 행정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다룬 논문 5편¹¹⁾은 제외하였다.

10) 최연홍·오영민(2004, 1호); 김도훈(2004, 2호); 홍미영·우양호(2004, 2호); 신영진·김성태(2004, 3호); 이규용·김용현(2004, 4호); 박정수·김혜원(2004, 4호); 최병대·김성년(2004, 4호); 김경한(2004, 4호); 최영출(2004, 5호)의 논문은 정책 및 제도를 사례로 선정하여 계량적 연구를 한 논문이다. 이 가운데 표본추출에 기초한 연구는 최연홍·오영민, 김도훈, 홍미영·우양호, 신영진·김성태, 김경한의 논문이며, 이 규용·김용현, 박정수·김혜원, 최병대·김성년, 최영출의 논문은 계량연구에 기초한 경제적 분석을 수행한 연구이다.

왜냐하면 사례연구는 표본추출에 기초한 통계적 일반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의 논리에 기초한 분석적 일반화를 추구한다고 좁게 보았기 때문이다. 정책사례연구에 제도연구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았다. 행정과 국민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행정내부관리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연구는 제외하고 정책변화를 수반하거나 유도하는 제도에 대한 연구¹²⁾는 포함시키기로 하였다¹³⁾. 따라서 이 논문에서 평가대상이 된 논문은 모두 21편으로 2004년에 게재된 전체 논문의 1/3을 상회 한다¹⁴⁾.

분석대상 논문을 연구유형별로 분류해보았을 때, 21개 논문 중 절반이 넘는 12개 논문이 탐색적·기술적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음이 확인되었다. 기술적 연구가 주가 되고 부분적으로 설명적 연구를 수행한 논문은 7개 논문이었으며, 이론적 의의가 있는 설명적 연구는 3개에 불과하였다.

2. 사례연구 수행과정에 기초한 평가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례선정에 있어서는 배용수·주선미(2004, 1호), 송충근(2004, 5호)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Yin(1989)이 규정한 중요성과 독특하거나 극단적인 사례를 선택함으로써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례를 선정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고경훈(2004, 1호)과 홍성만와(2004, 1호)의 연구 사례는 기존의 현상을 벗어나는 사례로 왜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는가를 적절한 하위변수를 도출하여 밝혀내고 있다. Lijphart(1971)가 분류한 사례연구유형 중 일탈 사례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매우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질문의 명시적 제시, 연구명제 및 가설설정에 있어서는 고경훈(2004, 1호), 홍성만·유재원(2004, 5호), 김만배·김성제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다른 항목에 비해 미흡하다고 평가된 논문이 많아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단위, 분석대상, 자료수집절차에 있어서는 사례에 대한 하위변수를 구성하여 분석단위, 분석대상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비교적 나

11) 이윤식·김지희(2004, 1호); 윤성식(2004, 2호); 나태준·김성준·김용운(2004, 3호); 송희준(2004, 5호), 이석희(2004, 5호)의 연구는 행정내부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한 논문임.

12) 여기에는 장지호(2004, 3호); 유영철(2004, 4호); 유병국(2004, 5호); 고혜원·이철순(2004, 5호); 김훈기(2004, 5호); 김정수(2004, 5호); 이재은(2004, 5호)의 논문이 해당한다.

13) 따라서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제도는 정책을 포함한 협의의 개념이다.

14) 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제5호가 사례연구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학술지 한 호를 사례연구만을 끓어 발간한 것은 사례연구의 중요성과 정책연구에 있어서의 방법론적 의의를 반증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료분석 및 결과해석에 있어서는 수집·분석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결과를 해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병국(2004, 5호)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끌어낸 연구는 용담댐의 수리권 분쟁사례에 대한 제도론적 분석을 통해 공유재의 이용을 둘러싼 정부간 갈등의 조정과 협력을 분석한 홍성만외(2004, 1호)의 연구와 정책네트워크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을 통해 무인과속단속시스템의 급속한 확산 요인을 밝혀내고 있는 김만배·김성제(2004, 3호)의 연구 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김만배·김성제의 연구는 기존의 정책네트워크이론이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한 네트워크 내 관련행위자의 이익(선호)의 성격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합리적 선택이론을 통해 밝혀냄으로써 중범위 이론과 미시적 이론의 결합을 시도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3. 사례연구설계 평가기준에 근거한 평가

사례연구설계의 평가기준인 구성적 타당성,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신뢰성을 측면을 한번 살펴보자. 연구대상을 정확하게 조작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달성될 수 있는 구성적 타당성을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논문은 김만배·김성제(2004, 3호), 홍성만외(2004, 1호)의 연구 둘 뿐이다. 자료에 대한 삼각검증과 연구대상자, 전문가들에게 검토 받는 과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논문만으로 확인될 수 없어 주로 하위변수 도출의 적정성, 측정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평가하였다.

내적 타당성은 이론적 틀을 토대로 한 설명적 연구에서 변수들간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 때 달성된다고 볼 때, 탐색적·기술적 연구에서는 원천적으로 충족될 수 없다. 21개 논문 중 설명적 연구는 단 세 편뿐이며, 이 가운데 홍성만외, 김만배·김성제의 논문만이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단일사례나 소수사례의 경우 가장 비판받는 부분이 외적 타당성이다. 일반화 가능성 정도를 의미하는 외적 타당성은 단일사례의 경우에는 동일한 하위변수를 추출하여 시기별로 분석하거나, 소수사례의 경우는 유사사례나 상이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제고할 수 있다. 분석대상 21개 논문 중 김도희(2004, 1호)는 상이한 사례를 선정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홍성만외(2004, 1호)는 신제도론적 연구를 통해 추상수준이 높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일탈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김길수(2004, 5호)의 연구는 단일사례를 시기별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위변수를 추출하여 시기별 비교분석을 수행하고 있지 않아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신뢰성은 동일한 절차를 반복할 경우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 확보된

다. 홍성만외(2004, 1호)와 홍성만·유재원(2004, 5호)의 연구가 신뢰성의 기준을 가장 잘 충족시키고 있으며, 다른 연구들도 보통수준정도로 이 기준은 달성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 연구절차에 따라 논리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증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이전정책을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한 김태영(2004, 5호)의 연구는 전형적인 사례연구 분석방법을 따르지 않고 상반된 입장을 가진 인물을 등장시켜 토론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독특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새로운 사례연구 서술방법을 시도함으로써 사례연구분석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연구설계에 대한 평가기준을 적용시켜 분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김태영의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설계 평가기준에 근거한 분석·평가를 유보하였다. 아마 교육용 사례연구로 활용된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표는 대상 사례연구를 평가요소에 따라서 평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물론 여기서 언급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지만 본 논문의 한정된 목적에 부합하게 평가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주기 바란다.

〈표 5〉 정책사례연구에 대한 평가 결과

평가요소 정책사례연구 구분	사례연구 수행과정				평가기준				연구형
	연구 질문 명시 적 제시	연구 형체 및 가설 설정	분석 단위, 분석 대상,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연구 결과 해석	구성 타 당성	내 적 타 당성	외 적 타 당성	신 뢰 성	
일탈사례: 지자체간 환경협력 정책형성사례	○	○	△	△	△	△	×	△	기술적·부분적 설명적 연구
NIMBY-PIMFY 시설 사례간 비교연구:	△	△	○	△	△	△	○	△	기술적·부분적 설명적 연구
일탈사례: 정부간 조정 및 협력 사례	△	△	○	○	△	○	○	○	설명적 연구 신제도론적 연구
민영화정책: KT사례	×	△	△	△	△	△	△	△	기술적 연구
과학기술정책: 핵융합연구개발정책	×	×	△	△	△	△	×	△	기술적 연구
교통정책: 무인파속단속시스템	○	○	○	○	○	○	△	○	설명적 연구
규제정책: 출자총액제한제도	×	△	○	△	△	△	△	△	기술적·부분적설명 적 연구
외교정책: 미, 대한반도 군사정책	△	△	○	△	△	△	△	△	기술적·부분적 설명적 연구
분권화정책: 식품행정체계	△	×	○	△	△	×	×	△	탐색적 연구
인력정책: 북한 인적자원개발정책	△	×	△	△	△	×	△	△	기술적 연구
복지정책: 의약분업정책	×	×	×	△	△	×	×	△	기술적·탐색적 연구
문화/산업정책: 스크린쿼터제	×	×	△	△	△	×	×	△	기술적 연구
governance 연구: 정부-주민간 환경협약	○	△	○	△	○	△	△	○	설명적 연구: 제도형성 과정 설명
통상정책: 반덤핑관세정책	△	△	△	△	×	×	△	△	기술적 연구
분권화정책: 행정수도 이전정책	△	×	△	△	?	?	?	?	탐색적 연구: 토론회 논의전개
입지정책: 단일사례 시기별 비교분석	×	×	△	×	△	×	△	△	기술적 연구
규제정책: 이동전화번호이동성제도	△	×	△	△	△	△	△	△	탐색적·기술적 연구
입법정책: 지방분권특별법	×	△	△	△	△	△	△	△	기술적·부분적 설명적 연구
지역문화관광정책: 삼교호 향산공원사례	△	△	△	△	△	△	×	△	기술적·설명적 연구
외국인 인력정책: 외국인 고용허가제	×	×	△	△	△	△	×	△	기술적 연구
생명윤리정책: 생명윤리법	×	×	△	△	△	×	×	△	탐색적·기술적 연구

주) ○: 우수, △: 보통, ×: 미흡

V. 요약 및 한계

사례연구는 연구목적 및 연구유형에 따라 인과관계를 밝히는 설명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량적 연구로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해석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연구는 도식화된 지식(geometrical intelligence)을 넘어서 인지적 지식(discerning intelligence)¹⁵⁾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므로 앞으로 행정학 및 정책학분야에서 점점 그 중요성이 증대할 것이다.

이 연구는 2004년도 「한국정책학회보」에 실린 정책사례를 사례연구의 논리적 추론과정과 연구설계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정책사례연구는 사례연구의 초보적 수준인 기술적, 탐색적 연구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연구를 통해 변수간 인과관계를 밝혀낸 설명적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한 연구는 과학적 연구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과소평가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해서 연구논문을 작성했다고 하면 통상 기술적 또는 탐색적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사례연구가 이러한 연구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기술적인 혹은 탐색적인 사례연구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연구의 기초 위에 설명적 사례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정책사례연구가 논리적·과학적 추론을 통한 경험적 연구가 되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할 몇 가지 기준 및 방법을 설명하였다. 정책사례연구가 방법론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사례에 대한 개념화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Ragin(1992)과 Yin(1989)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분석하고자 하는 정책사례가 경험적 단위인지, 이론적 구성개념인지를 분명하게 한 다음, 정책사례연구가 단일사례연구인지 복수사례연구인지, 분석단위는 전체적인지(holistic) 세분화되어(embedded)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적절한 정책사례가 먼저 선정되어야 한다. 모든 사회현상이 사

15) 사례는 서사(story)에 기초한 지식으로서 이를 통해 “감수성(appreciative sense)”을 기를 수 있다. 행정이나 정책은 공공부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정치이며 우리의 삶을 시민사회에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다. 사례분석을 위해서는 사례를 종합하는 것(case synthesis)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례는 사건의 흐름 속에서 선택하고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잠재되어 있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하는 정책결정자들과 상호연관된(interlocking) 정책들의 전체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Garvey, 1997: 7-28).

례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연구로서의 가치를 갖는 정책사례는 중요하거나(critical), 독특하거나(rare or unique), 극단적이어야(extreme) 한다. 또한 이전에는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없었으나 일반적으로 실재해왔던 내용을 다루는 고발성 사례(revelatory case)도 사회문제를 폭로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단일정책사례연구로서의 정당성을 가진다(Yin, 1989: 46-52).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사례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행태주의에서 채택하는 연구과정과 마찬가지의 논리적 추론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연구질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기준이론에 근거하여 가설을 설정한다. 이어서 연구의 분석단위를 결정하고 여기에 기초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이 자료를 이론적 명제와 논리적으로 연계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을 충실히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빠뜨리지 않고 잘 챙기기 위해서는 각 과정마다 점검해야 할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확인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례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계량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베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Firestone(1987), Rossman(1991)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서로 다른 연구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게 얻은 자료들과 연구결과물들의 상호연결에 따라 질 높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이선우, 2000: 110).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주제에 가장 잘 맞는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그 연구방법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대안적 연구방법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George & Bennett, 2005: 5-6).

다만,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사례연구방법론을 행태주의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면서도 행태주의 방법론이 따르고 있는 논리적 추론과정과 연구설계 기준을 들이 대어 평가함으로써 사례연구방법론의 이론적 지위를 행태주의 방법론의 하수로 평가절하하게 되는 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연구스타일의 차이일 뿐, 사회적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추론의 논리는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강신택. (1998). 「사회과학연구의 논리: 정치학·행정학을 중심으로」. 서울: 박영사.
- _____. (2002). 「행정학의 논리」. 서울: 박영사.
- 강일규. (2004). “북한의 인적자원개발 체제 및 정책분석을 통한 통일대비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방향과 과제 고찰.” 「한국정책학회보」 13(4): 305–338.
- 고경훈. (2004). “조직간 관계에서 환경 협력 정책형성에 관한 연구: 구로-광명 환경빅딜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1): 244–268.
- 고혜원·이철순. (2004).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과정.” 「한국정책학회보」 13(5): 17–43.
- 권기현. (2004). “한·캐나다 통상분쟁 정책사례.” 「한국정책학회보」 13(5): 217–229.
- 김경한. (2004). “목표관리제의 운영실태 및 효과성 평가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3(4): 39–62.
- 김길수. (2004).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저항 사례연구: 부안 방폐장 부지선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5): 159–184.
- 김도훈. (2004). “총허용어획량(TAC) 어업관리정책의 개선방안이 관한 연구: 고등어 TAC 어업관리정책을 사례로.” 「한국정책학회보」 13(2): 91–116.
- 김도희. (2004). “NIMBY와 PIMFY 시설입지정책의 갈등구조 비교분석: ‘북구 화장장 유치사업’과 ‘경부고속전철 울산역 유치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1): 157–188.
- 김만배·김성제. (2004). “무인과속단속시스템의 확산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3(3): 115–145.
- 김성훈. (2001). “사례연구방법을 통한 과학적 추론”. 「정부학연구」 7(1): 209–239.
- 김정수. (2004). “스크린쿼터제: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 「한국정책학회보」 13(5): 121–157.
- 김태영. (2004).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찬반논의 사례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3(5): 185–215.
- 김해동. (1984). “행정사례와 Case Method”.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설 한국행정조사연구소, 「한국행정사례집」, 서울: 법문사. pp. 3–20.
- 김훈기. (2004). “한국 생명윤리법, 윤리보다 생명공학 육성 중시”. 「한국정

- 책학회보」 13(5): 45–71.
- 나태준·김성준·김용운. (2004). “새 술을 현 포대에?: 서울시의 전략기획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3(3): 64–88.
- 남궁근. (1998). 「비교정책연구」. 서울: 법문사.
- _____. (2003). 「행정조사방법론」, 서울: 법문사.
- 박병식. (1993). “사례조사의 방법론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_____. (1994). “사례조사의 과학적 방법론 연구” . 「한국의 관료론: 방법과 실제」, 김해동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기념논문간행위원회.
- 박정수·김혜원. (2004).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학회보」 13(4): 191–212.
- 배용수·주선미. (2004). “민영화정책의 결정과정 분석: Zahariadis모형의 KT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1): 1–20. 「한국정책학회보」 13(5): 231–254.
- 송충근. (2004). “지역문화관광분야: (주)삽교호함상공원 정책사례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3(5): 231–254.
- 송희준. (2004).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의 제도화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3(5): 73–93.
- 신영진·김성태. (2004). “정보보호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 분석: AHP기법을 이용한 정책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3(3): 29–62.
- 유병국. (2004).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변경의 사례.” 「한국정책학회보」 13(5): 1–16.
- 유영철. (2004). “식품행정에 있어 분권화 정책의 방향과 한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중복기능에 대한 역할분담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4): 73–98.
- 윤성식. (2004). “예산개혁과 정부회계: 발생주의예산과 발생주의회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2): 21–36.
- 이경희·권순만. (2004). “의약분업정책: 이익집단의 영향과 정책과정의 교훈.” 「한국정책학회보」 13(5): 255–277.
- 이규용·김용현. (2004).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13(4): 21–43.
- 이달곤. (2005). 「협상론」. 서울: 법문사.
- 이석희. (2004).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영혁신과 연구회체제의 정립.” 「한국정책학회보」 13(5): 279–304.

- 이선우. (2000). “행정학 분야의 비계량적 연구에 대한 소고”. 「정부학연구」 6(1): 80–116.
- 이영철. (2004). “사회과학에서 사례연구의 이론적 지위”. 2004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별쇄본 pp. 1–8.
- 이윤식·김지희. (2004).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체계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3(1): 189–216.
- 이재은. (2004). “정부 입법정책 추진 사례: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한국정책학회보」 13(5): 305–326.
- 장지호. (2004).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동연구: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상반된 신념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3): 169–195.
- 최병대·김성년. (2004).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지방세 징수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3(4): 279–303.
- 최연홍·오영민. (2004). “정책 수용성의 시간적 변화: 위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입지 갈등 사례.” 「한국정책학회보」 13(1): 297–319.
- 최영출. (2004). “속성가치선택법과 정책속성의 화폐가치 평가: 제주도 행정통합 논의에의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13(5): 101–130.
- 허 출. (2004).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결정과정 분석: 앤리슨의 모형을 적용한 한국전쟁 시기별 비교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3(3): 233–257.
- 홍미영·우양호. (2004). “정책욕구분석을 통한 지역여성정책의 대안모색: 부산 지역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조사”. 「한국정책학회보」 13(2): 207–242.
- 홍성만·유재원. (2004).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주민간 환경협약 사례: 대포천의 수질개선·유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5): 96–119.
- _____. 주경일·주재복. (2004). “공유재 이용을 둘러싼 정부간 갈등의 조정과 협력 분석: 용담댐 수리권 분쟁사례에 대한 제도분석 틀(IAD framework)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1): 107–132.
- 황병상·강근복. (2004). “과학기술 정책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핵융합연구 개발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2): 175–204.
- 중앙공무원교육원. (1993). 「행정사례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1996). 「행정 및 정책사례」.
- Anderson, James E. (1994). *Public Policymaking: An Introduction*(2n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Bailey, Mary Timney(1992). “Do Physicists Use Case Studies? –

- Thoughts o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PAR*(52) 1: 41–54.
- Campbell, Donald. (1975). "Degrees of Freedom and the Case Stud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8).
- Garvey, Gerald. (1997). *Public Administration: The Profession and the Practice, A Case Study Approach*. NY: St. Martin's Press.
- George, Alexander L. & Bennett Andrew.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John F. Kenney School of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 Golembiewski, Robert T. (1976). *Perspectives on Public Management: Cases and Learning Designs(2nd)*. F. E. Peacock Publishers, Inc.
- _____ & White, Michael. (1980). *Cases in Public Management(3rd)*.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Harry, Eckstein. (1975). "Case Study and Theory in Political Science", in Fred I. Greenstein & Nelson W. Polsby(eds.). *The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7. Strategies of Inquiry*.(Reading, Mass.: Addison-Wesley) pp. 79–137.
- Hummel, Ralph P. (1991). "Stories Managers Tell: Why they are as valid as science". *PAR*(51) 1: 31–41.
- Lieberson, Stanley. (1992). "Small N's and big conclusions: an examination of the reasoning in comparative studies based on a small number of cases". in Ragin, Charles C. & Becker, Howard S.(eds.). *What is a Case?: Exploring the Foundations of Social Inquiry*. pp. 105–118.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jphart, Arend. (1971). "Comparative Politics and the Comparative Method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 Marshall, Catherine & Rossman, Cretchen B. (1989).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Ragin, Charles C. (1992). "Introduction: Cases of What is a Case?" in Ragin, Charles C. & Becker, Howard S.(eds.). *What is a Case?: Exploring the Foundations of Social Inquiry*. pp. 1–17.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in, Robert K. (198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Revised)*. Sage Publications.

Abstract

A Methodological Discourse on Policy Case Studies

EunSook Kang-Dalgon Lee

This paper analyzed thirty-five published articles on policy cases researches in the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2004. Also the case studies were evaluated according to indicators: (1) the process of carrying out the policy case studies for the logical inference, and (2)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case research design. We found that most of articles examined, except a few ones, were exploratory and descriptive level research. They are far below the level of empirical and scientific status. Nevertheless the case studies permit interpretative research to raise discerning intelligence which is hard to gain by quantitative research based on behavioralism. In the area of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high level of case studies are essential for finding more specific knowledge and building base for new theories. The present level of research in the Korean scholars should be upgraded in methodology of handling policy cases.

【Key words: policy cases, case study, research methodology, evaluation】